

삼례문화예술촌 방문객 5만명 돌파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잡아 인기몰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잡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하 예술촌)에 5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삼례문화예술촌(아트네트웍스)은 지난 1월 위탁업체로 선정돼 2월 말까지 시설을 마치고, 3월 재개관 이래 9개월 만에 총 5만27명의 관람객과 벤치마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25일 사)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가 주관한 삼례 및 동부(비봉, 고산)지역 '2018 완생동네 분과발표회'에 1000여명이 참석해 발표회를 끝낸 결과, 위탁업체 아트네트웍스는 이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잡아 인기몰이를 하고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제주도, 인천, 광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삼례문화예술촌을 벤치마킹하러 많은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방문해 도시재생의 성공사

례로 삼고 문화예술 체험 등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후 재개관된 삼례문화예술촌의 7개 양곡 창고는 모모미술관, 디지털아트관, 소극장 씨어터 애니, 김상림목공소, 책방 북아트센터, 커뮤니티 문치와 지역 내 만남의 장 역할을 하는 문화카페 뜨레 등으로 탈바꿈 돼, 역사·문화 등을 체험하는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성공적인 재개관을 이끈 심기영·가희 쌍둥이 대표는 40여 년간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세계 엑스포 무대에서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술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에 내려와 완주군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 삼례문화예술촌의 위탁운영을 맡았다.

가장 큰 변신을 한 곳은 모모미술관으로, 전북지역 작가의 초대전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작가들의 초대전도 개최해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시·군별 기획전을 열고 있다.

특히 모모미술관 특별기획 M.C. 에셔전 외 전국의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의 작품 전시도 유치해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 8일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결정된 대한민국 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에 맞춰 '제1회 대한민국 농악제'도 개최한 바 있다.

심기영·가희 대표는 "예술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 학생들과 각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상생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문화 컨텍츠를 제공해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고창농악의 멋진 춤사위와 가락에 뜨거운 환호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 발표회 성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고창농악을 지난 9개월 간 배운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 수강생들의 발표회가 최근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펼쳐졌다.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는 문화재청의 20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난해 고창농악배움터를 더욱 발전시킨 강습 프로그램으로 고창농악의 심도있는 전수를 위해 3년을 주기로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그 두 번째 해를 마무리하는 발표회

로 수강생들의 기량이 더욱 발전한 모습을 만나 볼 수 있었다.

공연에는 소고춤반의 고깔소고춤, 장구반의 설장구, 태평소반의 아리랑, 능계굿거리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수강생들의 고창농악 판굿 기초반의 고창농악 가락, 사물놀이반의 삼도 사물이 그리고 풍과리반과 함께하는 고창농악 판굿이 펼쳐져 발표회장을 찾은 많은 관객들과 가족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에서 풍과리와 오전장구반을 강습한 이광휴(고창농악 이수자) 강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차에 접어드는 수강생들의 기량이 날로 늘어나 감개가 무량하



다"며 "내년에도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가 3월에 개강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따뜻하고 행복한 감성음악회 'JS string 초청연주회'

29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다양한 문화적 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에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11월 공연이 오는 29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현악 앙상블 그룹 JS string 초청연주회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 시설 특성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삶을 제공하고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로 매달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JS string 그룹은 2000년도에 창단된 현악 앙상블 팀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순회공연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연주에서는 차이코프스키 왈츠, 하울의 움직임은 성, 시네마 천국 메들리, 여인의 향기, 작은 별 변주곡 등 영화, 애니메이션, 클래식으로 장르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소프라노 신시우, 바리톤 이현준의 성악무대도 함께 하며 수준 높은 연주와 관객 모두가 공감하는 현악의 선율 속에 11월 가정의 달 마지막 밤을 가족,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는 행복하고 따뜻한 감성음악회가 될 것이며, 고3 수험생은 수험표 지참시 무료입장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2018.11.29(화) 오후 7:00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국악에 대한 강렬한 인상 심어드려요'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29일 '갑분국' 공연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예술경영 전공 나희수,이지연, 임미연 학생은 갑분국이라는 공연기획 팀을 만들어 직접 공연을 기획했다.

'갑분국'은 '갑자기 분위기 국악'이라는 뜻으로 장소와 시간 등 환경적인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악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갑분국의 첫 번째 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고빠기 카페(완산구 장승배기로 124)에서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대금 창작곡 다향과 국악가요 배 띄워라로 구성됐다. 대금에는 김용주, 판소리에는 조은정 학생이 무대를 꾸민다.

갑분국의 나희수, 이지연, 임미연 학생은 "처음 해보는 공연기획이라 서툴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관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좋은 국악 연주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의 희망과 미래,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다

군산아리울남성합창단, 내달 2일

군산예술의전당서 정기연주회 개최

군산아리울남성합창단(단장 김영진)이 '군산의 희망과 미래,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12월 2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정성현 지휘자, 박주현 반주자와 함께 열리는 이번 공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정서에 조금이나마 기운을 북돋아보자는 단원들의 뜻을 모아 군산의 희망과 미래, 사랑을 무대에 담았다.

각 주제별로 남성 4부 합창의 웅장하고 힘 있는 화음이 환한 기운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힘든 상황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열린 제2회 전라북도아리울어버이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주여성합창단'과 락밴드 '좋은 친구들', 바이올리니스트 최흥 씨도 함께 감동의 무대를 엮어간다. 김영진 단장은 "부족하지만 단원들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 그리고 사랑'을 전해 보자며 한해 동안 시간을 쪼개어 가며 정성껏 준비했다"며 "시민 모두 아름답고 따뜻한 음악 속에서 한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2(일) PM 5:3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한편, 아리울남성합창단은 지역사회에 희망과 즐거움을 주고 소외된 이웃에게 용기와 위로로 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창단돼 올해 김영진 군산의료원장을 제3대 단장으로 선임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